"놀이하며 부처님 닮아가요"

불교교재 교구 개발로 '유아포교 새 전기'

불교관련 교재·교구를 이용한 유아포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유아교육을 실시하자는 움직임으로 일부 유아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지난 10월 15일, 16일 양일간 서울 신사동 삼화불교대에서 열린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 전시회가 어린이 포교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교관련 교재·교구 41개 작품이 선보였다. 주사위를 이용해 교통법규에 따라 절에 가는 '사찰가는 길' 떡 곡식 과일 등을 붙인 주사위를 던져 대웅전이나 큰법당 모형에 공양그림카드를 붙이는 '부처님 공양올리기'등의 작품은 놀이를 통해 어려서부터 사찰과 부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람자의 시선을 끌었다.

◇불교교재 교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불교교재 교구로 부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또한 목탁이나 연꽃 등 불교사물을 친숙하게 익힐 수 있는 '모래시계' 환경의 중요성을 게임을 통해 일깨워 주는 '우리도 절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등은 포교는 물론 유아 심성개발을 위한 좋은 교구로 평가됐다.

이처럼 불교교재·교구개발은 단지 불교유치원의 숫자만 늘리는 양적팽창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으로 불교유치원에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불과 몇해전만 해도 불교계에는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나 교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서구식 교육과정에 따라 개신교 교재가 이용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개신교의 경우 교재·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에 일찍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시장성까지 확보하고있다.

불교계도 최근들어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 개발에 착수하여 일선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전문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있다.

서울 사천왕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성유치원 이수진 지도교사는 불교관련 교재에 대해 "고작해야 부처님 일대기 비디오 테이프 몇개였으며 그나마 내용도 지루하고 교육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현대감각에 맞는 불교 교재가 개발되고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유아용 교재 교구는 삼화불교대 불교유아교육과를 비롯 어린이법회 교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고있다. 이들의 교재개발은 교육일선에서 필요에 의해 만든것이 대부분으로 아직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있다. '열악한 재정형편과 기존 모델의 부족으로 보급이 늦어지고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교재가 제작되어도 시장성이 없어 일과성 제작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불교유아교육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구의 활용이 떨어지는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불교유아용 교재·교구 개발에 임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유아포교를 위한 새로운 교재개발은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며 "사찰과 유아교육관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을때 내일의 불교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명우 기자〉

동시

도토리

고명재

〈대구·대명국교 1〉

때굴 때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까마귀 물어가다
떨구어서 굴러왔지

때굴 때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할머니 산골서 주어와
주머니에서 나오지

때굴 때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나무에 앉아있다
떨어져서 왔지

때굴 때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다람쥐 한눈 팔때
굴러서 왔지

만화

法句經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바람앞에 바위산처럼 굳은신앙을

이향원

직지사 가는 길

최우수상

김정수 〈은석국교 6〉

한국불교 아동문학회(이사장 박용열)가 주최하는 13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 현상공모 입상작이 발표됐다. 총 응모작품 4만2천1백12편의 어린이 글짓기 작품가운데 동요 동시 56편 산문부 64편의 작품이 뽑혔다. 산문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정수군의 작품을 소개한다.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칠보사에서 개최된다. (416-3346)

반가운 비를 몰고 온 부처님의 동자라고···

"와! 무서워!"

흔들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학년 동생들이 천둥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하였다. 천둥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였다. 국민학교에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가는 수련회여서 더욱 기대가 되었던 수련회였다. 다른 때보다 훨씬 재미있게 보람있게 보내고 싶었다. 더군다나 가는 장소가 직지사여서 나의 흥분은 머리꼭대기까지 올라 지난밤에는 거의 대여섯번을 잠에서 깨어나곤 하였다.

그런데 천안을 지나면서부터 쏟아지는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치기는 고사하고, 천둥과 번개까지 친구하여 더욱더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재수없네. 직지사로 가니까 부처님께서 특별히 봐 주실 줄 알았잖아.'

나는 비쏟아지는 것이 꼭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미워하셔서인 것처럼 투덜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옆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지도 않으시는 모양이었다. 즐거운 표정으로 마냥 스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여 앉아있는 자리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후 조금씩 검은 구름이 벗겨가기 시작하더니 엷은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와! 무지개다! 하늘에 쌍무지개가 걸렸다.!"

순식간에 반짝거리는 눈들이 차창밖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려고 난리들이었다.

뽀얀 안개 사이로 걸린 두개의 무지개는 어둡던 내 마음의 구름을 싹 걷어가고 말았다.

쌍무지개와 함께 직지사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스님들께서 반갑게 마중을 나와 계셨다. 설법전에 짐을 풀고 입제식을 하였다. 스님께서는 우리들이 반가운 비를 몰고 온 부처님의 동자들이라고 하시며 어느 정도 가뭄이 해결되었다고 좋아하셨다.

눈을 감고 입정을 시작하며 나는 버스속에서 잠시 가졌던 마음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에 좋은 일이 있을때 부처님께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다. 그리고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섭섭한 마음으로 부처님때문이라고 원망하며 투덜거리곤 하였었다.

오늘도 다른날과 마찬가지였다. 비가 쏟아지면 우리들은 놀수도 없게 되고, 활동하기에도 불편하게 될 것만 같아서였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이 심해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려보지 않았던 것이다.

논바닥이 갈라져 타들어가는 모를 보며 한숨짓는 농부들의 얼굴을 나는 텔레비전에서 여러번 보았다.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고추잎을 보며 눈물을 닦는 아주머니들의 얼굴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로지 뛰어놀고 장난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비오는 것이 싫기만 하였던 것이다.

입정을 끝냈을때 부처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웃고 계셨다.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내일 개울에서 수영도 할 수 있대요. 물론 많은 식물들도 쑥욱쑥욱 잘 자랄꺼구요.'

그날밤 꿈속에서 나는 많은 친구들과 즐겁게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봉 봉선사 주지 진산식 안내 축

귀의 삼보하옵고,
역경과 전법의 요람이며, 유서깊은 교종 본찰인
봉선사 주지 운경 기홍 큰스님의 진산식을
여러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불기 2538년 11월 10일

주지 진산 봉행 위원회

증 명: 월하
지 도 위 원: 태정, 성파, 일우, 일면, 태공, 화담, 각원
봉행위원장: 밀운
집행위원장: 의정
기 획 실 장: 화범
섭 외 담 당: 정수, 준원, 의선, 법류
홍 보 담 당: 의광, 송묵, 철안
재 정 담 당: 의화, 경하, 법혜
의 전 담 당: 정수, 인묵, 충현

*일 시: 불기 2538년 11월 10일 (목) 오전 11시
*장 소: 봉선사 큰법당
*안내전화: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0346)68-1951~3 FAX:68-1958
(화환은 사절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 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변 밀 운 합장